WORLD ECONOMY UPDATE

KIEP 오늘의 세계경제

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.kiep.go.kr | 137-747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| ISSN 1976-0515 | Vol.9 | No.2 | 2009년 2월 13일

G-20 체제의 주요과제와 대응방향

오 용 협 국제거시금융실 실장 (yho@kiep.go.kr, Tel: 3460-1022)
김 연 실 국제거시금융실 연구원 (ykim@kiep.go.kr, Tel: 3460-1187)

1. 논의 배경
2. G-20 체제의 부상 가능성
3. G-20의 주요과제 및 핵심내용
4. 우리나라의 대응방향

주 요 내 용

▶ 2009년 4월 2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예정인 차기 G-20 정상회의를 두 달 앞둔 현재 참여국들은 지난 2008년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실행계획(action plan)의 이행 작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.

- 우리나라는 영국, 브라질과 함께 G-20 공동의장국으로서 국제금융질서 재편 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음.

▶ 현재 부상하고 있는 G-20 체제의 핵심은 정상회담을 통해 주요 의제가 다루어진다는 데 있음.

- G-20 체제는 회원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이 참여하는 회의로 10년 이상 지속되어 왔으나 작년 워싱턴회의부터 정상회담으로 격상됨.

- 런던정상회담을 위해 금융위기 타개를 위한 4대 실천과제를 선정하고 이 과제별로 Working Group(실무진그룹)으로 구성된 합동운영위원회에 의해 조직적으로 G-20 국가 간에 의견조율이 이루어지고 있음.

- 4대 실천과제는 금융 건전성 규제 및 투명성 강화, 국제협력 강화 및 금융시장 신뢰성 제고, IMF 개혁, World Bank와 기타 지역별 국제개발은행(ADB, IDB, AfDB 등) 개혁임.

▶ 우리나라의 과제는 개도국의 리더로서의 입장을 강화하고, 이를 새로운 국제금융질서 재편작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며, G-20 체제가 앞으로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.

- 우리나라는 개도국 리더로서 개도국의 이해를 대변하는 방향으로 금융규제 개혁방향을 제시하고 국제금융기구에의 참여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중요함.

- G-20 체제는 각국 정상이 참여하는 회의로 운영될 때 세계경제의 대표적인 지배구조로서 기능하게 되는데 이 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상회담의 정례화가 이루어져야 함.

- 이를 위해 'Buy American' 등 보호무역주의의 부상은 G-20 체제의 기본원칙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이를 경계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, 금융위기 이후를 대비한 중장기 과제도 G-20 의제에 포함시키도록 할 필요가 있음.

1. 논의 배경

■ 현재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국제금융질서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보여줌으로써 국제사회에 국제금융질서 재편의 필요성을 일깨운 사례임.

- 최근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(WEF)에서도 '위기 이후의 세계질서 개편(Shaping the Post-Crisis World)'을 주제로 국제금융질서의 수립과 국제금융체제 개혁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룸.

■ 지난 2008년 11월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G-20 정상회의는 그간 세계경제질서를 주도해 온 G-7/G-8 체제만으로는 현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힘들다는 자성과 함께 국제경제에서 이머징 마켓이 차지하는 영향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데 참여국가간 공감대가 이루어진 데 따른 것임.

■ 특히 우리나라가 G-20 공동의장국으로서 국제금융질서 재편 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은 획기적인 사안임.

- 우리나라는 2010년 G-20 의장국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영국, 브라질과 함께 G-20 의장단으로 활동하게 됨.

- 향후 G-20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, 우리나라는 이 기회를 십분 활용하여 국제 외교무대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함.

■ 2009년 4월 2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예정인 차기 G-20 정상회의를 두 달 앞둔 현재, G-20 참여국(기구)들은 2008년 워싱턴 G-20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공동선언 실행계획(action plan)의 이행 점검 작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.

■ 이에 본보고서는 G-20 체제의 부상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고찰해 보고, G-20 의제와 핵심내용을 분석한 후, 의제별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함.

2. G-20 체제의 부상 가능성

■ 새로운 세계경제질서는 G-7/G-8(G-7+러시아)이 아닌 G-20가 주도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시화되고 있음.

○ G-7 국가는 독일, 미국, 영국, 이탈리아, 일본, 프랑스, 캐나다이며, G-8은 G-7에 러시아를 포함함. G-20는 G-8 국가에 중국, 인도, 브라질, 멕시코, 남아공, 사우디아라비아, 한국, 인도네시아, 호주, 터키, 아르헨티나, EU 의장국이 포함됨.

- G-20 체제 부상은 개도국의 경제적 중요도가 높아져 이들 국가의 참여 없이 국제경제·금융시장의 글로벌 지배구조 재편을 논하기는 어려워진데 따른 것임.

- 특히 지난 10년 동안 G-7의 세계 GDP 비중은 64.0%에서 55.7%로 대폭 줄어들었으며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1%선에서 큰 변화 없이 머무름.

표 1. G-7·G-8·G-20의 세계 GDP 및 세계 인구 비중

(단위: %)

구분	세계 GDP 비중			세계 인구 비중		
	1990년	1997년	2007년	1990년	1997년	2007년
G-7	67.9	64.0	55.7	13.4	11.9	11.1
G-8	-	65.4	58.1	16.4	14.5	13.3
G-20	-	89.9	88.6	70.3	65.2	63.1

자료: International Monetary Fund(2008.10),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.

- 반면 G-20는 2007년 기준 세계 GDP 비중이 85%를 상회해, 이 국가들의 공조만으로도 세계경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보여줌.

- 특히 미국발(發) 금융위기가 글로벌 실물경제로 확산되어 올해 대부분의 선진국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플러스 성장이 예상되는 개도국과의 경제적 격차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임.

- 따라서 최근 금융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세계경제는 변화된 개도국의 위상을 반영한 질서 재편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임.

■ 한편 일각에서는 G-20보다는 G-13·G-14·G-16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지만, G-20 체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당위성을 가짐.

- 첫째, G-20 체제는 이미 10년 이상 지속되어 온 체제로서 그동안 연례 재무장관 회의를 통해 이미 협의시스템이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음.

- 둘째, 지난해 처음 개최된 G-20 정상회의는 글로벌 금융위기

확산을 막고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긴급소집된 것으로, 신속하고 즉각적인 동원이 가능한 선진국과 개도국간 협의체임.

○ 국제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속한 대응이 최우선시 되는바, 다시 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·경제적 기회비용을 제거할 수 있음.

- 셋째, G-20는 모든 대륙을 아우르는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대표성을 띰.

○ 가령 G-20에는 G-14에는 제외되어 있는 오세아니아의 호주, 남미의 아르헨티나,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, 그리고 EU 의장국 등을 포함하고 있어 협의안의 파급효과가 뛰어나며 회의체의 포괄성도 가짐.

표 2. 최근 제기된 G-20 대체 그룹

구분	회원국	창설 배경
G-7	미국、일본、영국、프랑스、독일、이탈리아、캐나다	- 국제적인 통화시스템의 위기, 석유위기, 경기침체 위기에 직면하여 1970년대에 창설됨. - 1976년 캐나다가 마지막으로 포함된 이후 G-7 정상회담이 정례화 됨.
G-8	G-7、러시아	- 1997년부터 G-7에 러시아 참석
G-13	G-7、러시아、중국、인도、브라질、멕시코、남아공	- G-8(G-7 + 러시아)에 신흥개도국을 포함하여 확대하자는 안(案)이 제기되고 있으나, 아직 공식 출범한 것은 아님.
G-14	G-7、러시아、중국、인도、브라질、멕시코、남아공、사우디아라비아	
G-16	G-7、러시아、중국、인도、브라질、멕시코、남아공、인도네시아、터키、이집트(또는 나이지리아)	
G-20	G-7、러시아、중국、인도、브라질、멕시코、남아공、사우디아라비아、한국、인도네시아、호주、터키、아르헨티나、EU 의장국	- 1990년대 말 금융위기에 대처하고, 신흥개도국의 경제규모를 고려하여, '99년 9월 창설된 선진국과 주요 신흥개도국 간 재무장관 회의체임. - 2008년 첫 G-20 정상회의 개최(G-20 회원국 외에 ECB, IMF, WB 대표도 참석함) - 2009년 4월, 차기 G-20 정상회의 개최 예정(아직 정례화 되지는 않음)

■ G-20 체제는 금융위기 발생 이후 축소된 자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재기하려는 미국의 의도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임.

- 미국은 미국발(發) 금융위기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확산된 후 영향력이 약화됨. 이에 미국 영향권 아래에 있는 개도국을 세계 지배그룹체제에 포함하도록 하여 이들 국가들과 강한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자국의 영향력을 점차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임.

- 그 이유는 G-7/G-8 또는 G-13/G-14와 같이 유럽(EU) 및 선진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세계 지배그룹체제 내에서는 미국의 영향력을 계속 지켜나가는 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임.

■ G-20 체제에 대한 오바마 신정부의 입장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고, 프랑스, 영국을 중심으로 브레튼우즈 체제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유럽연합의 입장이 아직 어떤 형태로든지 개진된 바 없으며, 개도국의 경우 아직 구심점이 약하다는 점에서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됨.

- 따라서 앞으로 정상회담 수준의 G-20 체제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상존하고 있는 상황임.

3. G-20의 주요과제 및 핵심내용

■ 2008년 11월 15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G-20 정상회의에서 각국은 5대 기본원칙과 47개 중·단기 실행계획(action plan)에 합의함.

- 합의된 주요 사항은 우선 현 국제금융시장에 노정되어 있는 규제·감독 기능의 문제를 개선하여 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임.

- 아울러 당면한 국제금융위기 타개를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IMF와 World Bank를 중심으로 브레튼우즈 체제에서 창설된 국제금융기구의 한계점을 개혁하고자 함.

■ 2008년 G-20 정상회의 이후 G-20 의장국단(브라질 영국·한국)과 이슈별 Working Group(실무진그룹, 이하 WG)의장단으로 구성된 합동운영위원회가 47개 실행계획에 따른 실천과제를 조직적으로 점검하고 조율하는 작업을 수행함.

가. 주요 의제

■ 현재 G-20 WG별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이 분류됨.

표 3. G-20 WG별 주요 의제

구분	주요 의제
WG 1	금융 건전성 규제 및 투명성 강화
WG 2	국제협력 강화 및 금융시장 신뢰성 제고
WG 3	IMF 개혁
WG 4	World Bank과 기타 국제개발은행(MDB) 개혁

■ WG 1은 금융·감독 제도의 개선에 대한 이슈를 다룸.

-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감독체계를 개선하여 최근과 같은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.

- 이번 금융위기는 단기실적위주의 금융회사 보상체계로 인해 리스크 관리가 소홀하여 발생한 사태임을 자성하고 바람직한 보수체계를 구축하도록 논의함.

- 또한 회계기준과 공시제도를 개선하여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함.

■ WG 2는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금융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둠.

- 기존 G-7 국가들 위주로 조성되어 온 국제금융체제에 신흥국의 참여를 확대하여 금융위기 타개를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토록 함.

- 또한 정책당국간 협력을 강화하여 금융시장의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함.

■ WG 3과 WG 4는 현 브레튼우즈 체제로 대변되는 IMF, World Bank 등의 기능과 지배구조를 변화된 국제경제체제에 맞추어 개선하는 것에 집중함.

- IMF의 금융위기 대응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재원 확충 방안을 논의하며, 대출제도의 유연성을 높여 국제금융환경에 맞는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제도의 탄력성을 확보하도록 함.

- 또한 금융감독 기능에 전문성을 갖춘 FSF(Financial Stability Forum)와의 협력을 통해 IMF의 기능을 보완하도록 추진함.

- 한편 World Bank 및 기타 MDB가 금융위기 상황에서 조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역할을 재조정함.

나. 향후 일정

■ 2009년 4월 2일 개최될 차기 G-20 정상회의 이전까지 G-20 회원국 및 참여 국제기구들은 효율적으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합동운영위원회(Coordination Group)를 구성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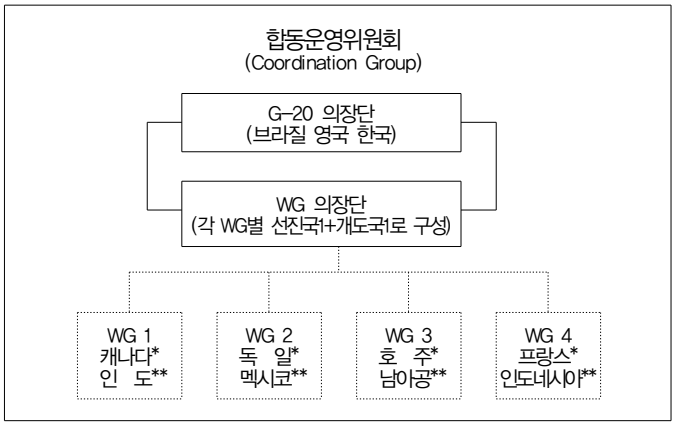
- 합동운영위원회는 G-20 의장단(브라질、영국、한국)과 WG 의장단으로 이루어져 있음. 여기서 WG 의장단은 선진국 1국과 개도국 1국 등 8개 국가로 구성됨.

■ WG 의장단은 이슈별로 전체 G-20 회원국과 IMF, World Bank, ECB 등의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아 담당그룹별 진행상황을 관리하는 책임을 짐.

- 4대 WG의 운영체제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조화로운 역할 분담을 통해 새로운 국제금융질서 확립을 도모하는 데 그 목표가 있음.

- 아울러 이슈별 WG 의장단을 선정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함.

그림 1. G-20 WG 합동운영위원회 운영체제



주: *선진국, **개도국.

■ 이번 G-20 체제는 특히 IMF와 World Bank 및 기타 MDB 등도 논의과정에 포함하여 향후 도출될 합의안의 실질적 이행 가능성을 높임.

- 브레튼우즈 체제의 개편에 대한 논의는 금융위기 이전부터 국제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구심점을 찾지 못해 공론화되기 어려웠음.

- 그러나 이번 논의는 유럽(선진국)을 중심으로 의견이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, 대상 국제기구들을 논의 과정에 직접 포함시킴으로써 브레튼우즈 체제 개편에 대한 실질적 압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됨.

다. 의사결정 과정

■ G-20 체제는 적지 않은 회원국 수로 인해 의견 합치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, WG별 합의안 도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체계화함.

- 우선, ① 선정된 WG 의장단이 2008년 G-20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47개 중·단기 실행계획에 따른 실천과제 제안서를 작성하고, ② 이에 대한 G-20 회원국 및 관련 국제기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, ③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, ④ 최종안을 도출함.

- WG 의장단에 의해 도출된 이슈별 최종안은 G-20 공동의장단이 일관성 있게 최종 합의문을 작성함.

■ 이러한 G-20 의사결정 과정은 G-20 회원국 전체의 참여를 자연스럽게 유도하며, 특히 개도국의 의견수렴 창구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음.

- 특히 WG 공동의장단을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구성하여, 이슈별 최종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도록 상호 견제와 균형의 기능이 가능하도록 함.

- 이는 G-20 체제가 새로운 국제금융질서에서 변화된 개도국의 위상을 반영하기 위해 창설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취지와 기본목표를 잘 반영함.

4. 우리나라의 대응방향

가. G-20 의제에 대한 대응방안

■ 우리나라는 개도국 리더로서 개도국의 이해를 대변하는 방향으로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국제금융기구에의 참여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함.

■ 또한 FSF 등 국제기구 회원 가입 및 IMF, World Bank, 기타 MDB에서 쿼터 확대 등 국제금융 지배구조에서 우리나라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.

■ WG별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을 다음과 같이 모색해 봄.

① WG 1: 금융·감독 제도개선

- 우리나라와 같이 금융시장 개방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경우, 글로벌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가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되므로 국제회계기준 마련, 위험공시, 리스크 관리 등 관련 기준을 강화하고 취약점은 즉시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함.

- 선진 금융기관들의 위험관련 공시기준을 강화하고, 복잡하고 비유동적인 상품에 대한 평가시스템과 국제회계기준을 개선하며, 이를 개도국 금융회사에도 확대 적용토록 하여 금융위기 재발 가능성을 낮추도록 함.

② WG 2: 국제협력 강화 및 금융시장 신뢰성 제고

-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금융기관과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·감독에 있어 국제협력을 강화하여,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를 제고하도록 노력해야 함.

- 한편, FSF 가입 추진 시에는 우리나라의 독자적 가입 추진보다는 G-20에 포함된 개도국도 함께 가입되도록 추진하여 향후 FSF의 국제기준 마련 시 신흥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함.

③ WG 3: IMF 개혁

- 우리나라는 IMF 지원을 제공받은 경험이 있는 국가로, IMF 지원프로그램의 유연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함.

- 지배구조 개혁을 위한 쿼터 조정에 대한 노력도 경주해야 할 것임.

④ WG 4: World Bank 등 기타 MDB 개혁

- World Bank 및 기타 MDB 개혁 문제와 관련해서는 IMF 개혁 논의와 마찬가지로 경제력 비중을 반영한 지배구조 개선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임.

나. G-20 체제의 지속여부가 관건

■ G-13·G-14·G-16 등 다수의 회의체제가 G-20 체제의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, 우리나라는 G-20의 지속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함.

- G-20 체제 이외에 거론되고 있는 다른 세계 지배그룹체제에는 한국이 제외되어 있음.

- 그러므로 G-20 체제의 지속성을 위해 우리나라는 이머징 마켓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임. 특히 G-20 의장단으로서의 역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국제금융체제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됨.

- G-20 차원에서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. 가령 MDB의 ODA 프로그램으로 G-20 특별펀드(가칭)를 개설하여 경제위기에 직면해 있는 개도국 또는 최빈국에 대한 공동 지원 사업을 제안할 수 있음.

- 향후 금융위기를 극복한 이후에도 G-20의 지속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과제도 적극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음.

○ 앞으로는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기후변화, 에너지문제, 빈곤퇴치 등 새로운 글로벌 이슈에 대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이는바, 이러한 논의를 G-20 체제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의장단 임기 중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.

○ 이로써 글로벌 경제위기를 계기로 형성된 G-20 체제가 경제위기 극복 이후로도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음.

■ 국제회계/위험공시/리스크관리 등과 관련한 국제기준이 규제·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경우, 이에 대한 적응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이해를 반영해 나가야 할 것임.

- G-20 체제 내에서는 국제금융시장을 포함한 국제무대에서 생성되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이점이 있음.

- 국제기준 마련 시 우리나라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국내 금융산업·기업·정부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됨.

■ 그러나 최근 미국의 경기부양 법안에 'Buy American' 조항을 삽입한 것은 2008년 워싱턴 G-20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선언에 위반되는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반대의견을 적극 개진할 필요가 있음.

- 'Buy American' 조항은 정부자금이 투입된 건설사업에 미국산 철강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으로, 여기서 철강 제품은 '철강과 그 가공 제품'을 의미함.

- 경기침체기에 자국 산업을 위한 보호주의의 강화 가능성은 위기 타개를 위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에 정면 배치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대의사를 지속적으로 개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. KIEP